# "제주평화대공원 서부권 핵심 공간으로"

### 도, '…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용역 결과 공개
### 용역진, 부지 활용·주민과의 상생 방안 제기
### 송악산·올레코스·일제 군사시설 연계방안도

최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관련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평화대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유적지를 연계해 서부권 핵심 공간인 '(가칭) 송악산 평화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원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들에 대한 경작권 보상 방안으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용역 보고서를 최근공개했다. 이 용역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활용 방안,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진은 공원 조성 시 시설과 규모를 비롯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경작지와 공원 조성 부지의 상호 공존 방안도 검토했다.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파악을 위해 도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수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제주평화대공원을 중심으로 인근 역사·자연자원을 연계해 '서부권 핵심 공간'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가칭) 송악산 평화대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특히 계획부지가 현재 올레코스로 이어진다는 점과, 산방산에서 송악산을 거쳐 수월봉까지 이어지는 지질트레일 코스, 곶자왈 도립공원, 가파도·마라도 등의 자연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됐다.

평화대공원을 중심으로 일본군·한국군 전쟁유적지, 4·3유적지 등을 묶어 근대사 관광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도 담겼다.

주변지역인 마라해양도립공원의 송악산 영역과 연계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단 연구진은 공원시설 조성 시 유적지 관람에 필요한 시설로 최소한으로 조성해 경작 주민의 경작활동을 존중할 것과 주변 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적지 관람을 위한 관람로와 경작주민을 위한 농로를 분리해 한 공간 내에서 공존하도록 계획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주변지역 영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농보상 방향성도 설정했다. 연구진은 "현재 대부분의 영농이 임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화대공원 사업으로 농지가 편입될 경우 평화대공원 내 전체 농지에서 영농을 지속하고자 하는 영농인을 대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토지가 공원시설로) 편입되는 경우 현재의 경작행위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 정치권, 내년 총선 준비 체제로…

### 더불어민주당, TF 본격 가동 공천제도 손질 나서
### 국민의힘 김기현 새 당대표 "내년 총선 본격 준비"

정치권이 내년 22대 총선 공천 룰 마련에 나서는 등 총선 준비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22대 총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당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공천TF는 이개호 의원을 단장으로, 정태호 의원을 부단장으로 하며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천제도와 관련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천룰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천 원칙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확립해 놓은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총선승리 및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난 9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분 1초도 허투로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겠다"며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 빼앗긴 국회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도내 첫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국가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생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 바이오융합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도내 화장품 기업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은 전국에 약 20개소가 지정돼 있지만그동안 제주지역에는 없어, 도내 화장품 기업들은 도외에서 제품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TP는 지난 2년여간 기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시설과 장비를 갖춰 국가 지정 기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식약처의 현장평가를 거쳐 올 3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내 화장품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기능성화장품 함량 분석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 화장품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한 시험·검사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TP에서 운영하는 제주 화장품공장은 도내 화장품 기업 제품을 연평균 90여 개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식약처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과 화장품 산업 국제표준 규격인 ISO-22716 인증을 3회 연속 받는 등 시설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아, 10년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화장품, 미생물에 대한 시험분석을 한 해 300여 건 지원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베트남 부총리와 회의장 입장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제2차 한국-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에 참석, 레 밍 카이 베트남 부총리와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귀포시 10억 들여 'K-POP 콘서트' 연다

### 한국관광공사 공모 선정 국비 2억원 확보
### 일부선 "단발성 행사에 예산낭비" 지적도

서귀포시가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도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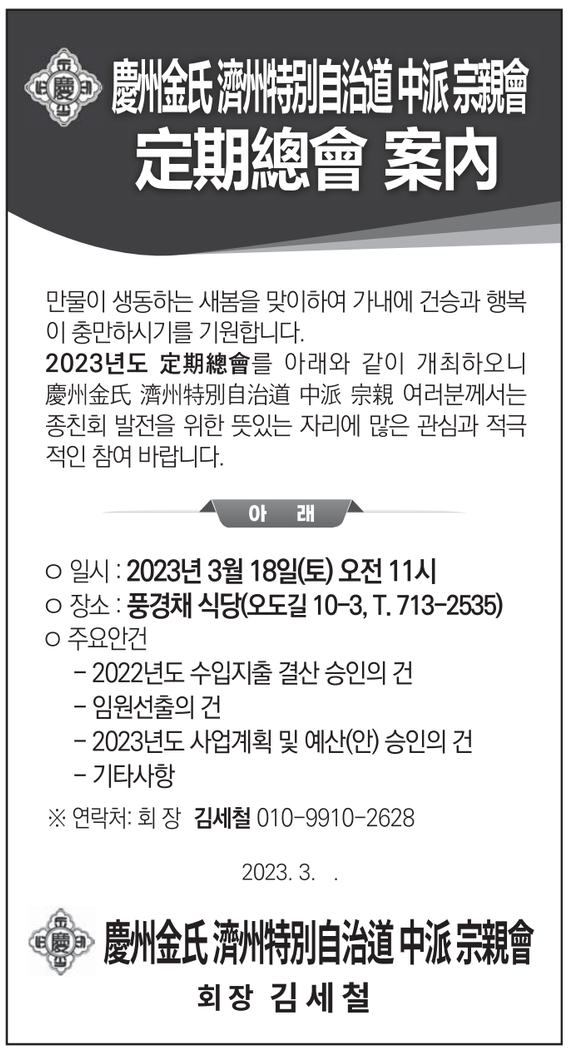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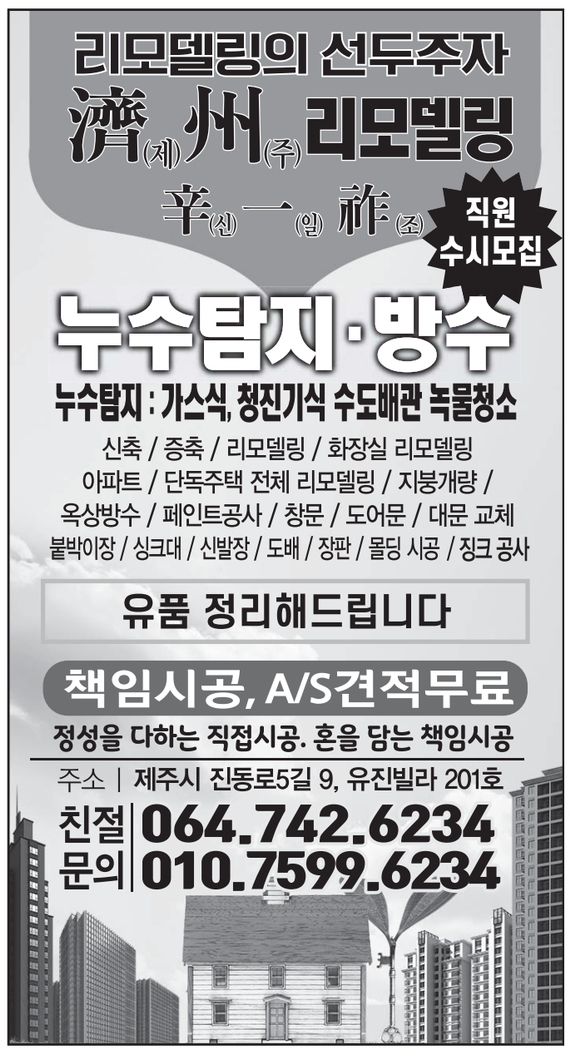
1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K-POP 콘서트의 관광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가 응모해 서류심사와 이달 3일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선정 기관은 방한 외국인 콘서트 유치, 지역관광 활성화 계획, 예산 확보와 행사 규모 등 행사 매력도, 국내외 홍보 계획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K-POP 콘서트임에도 ▷서귀포만의 가치와 매력을 K-POP 콘서트와 결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제주 직항 노선과 제주 무사증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전략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글로벌축제 지속가능성 ▷예산 확보 및 행사장 수용능력 등을 집중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국내 정상급 K-POP 스타의 공연과 함께 다양한 부대프로그램으로 K-POP콘서트를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K-POP 콘서트에 올해 1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단일 문화행사중 가장 큰 예산규모로 서귀포 칠십리축제와 유채꽃축제를 합친 예산을 상회하는 수치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특정 민간단체를 염두한 기획사업이라는 점과 단발성 문화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독자 제보 ☎750-2114